

5월 가정의 달  
가정예배 캠페인

우리 가정은  
매주 \_\_\_\_\_ 요일 \_\_\_\_\_ 시에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우리 가족의 기도제목

1

---

2

---

3

---

4

---



## 가정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향해 결단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이런 거룩한 예배를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복되고 아름다운 일이 있을까요?

히브리어 ‘바이트’가 집과 성전의 의미를 모두 포함하듯이, 가정은 곧 성전입니다.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아름다운 신앙이 됩니다.

가정예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신앙교육의 주된 장(場)은 가정이고, 중요한 주체가 부모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교제할 수 있도록 가정예배서를 준비했습니다.  
주 1회 가족이 모두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해서 예배서를 참고하여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 [ 자녀와 함께 하는 예배 : 3-23쪽 ]

- 찬 양 QR코드를 활용합니다.
- 성경 본문 어린 자녀들도 집중해서 읽을 수 있도록 대본 식으로 준비했습니다.
- 메 시 지 부모 또는 조부모 중 한 분이 전해주시고,  
메시지에 대한 각자의 생각이나 느낌을 꼭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 활동 함께 교제를 나누는 시간으로, 미션을 수행하면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 [ 가정 예배 : 24-31쪽 ]

- 성경 본문 가정 예배 성경 본문은 함께 읽습니다.
- 메 시 지 한 사람 혹은 여러 사람이 읽습니다.
- 생각해봅시다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번 가정예배 캠페인을 통해,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사랑의 교제가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

## 5월 [1주]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어요

---

### 1 기도 다함께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예배를 통해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2 찬 송 다함께 \*가정에 맞는 찬양 자유롭게 선택

새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1,4절)



1.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네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4.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네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후렴]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네 마음을 쏟아노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복음 성가 “약할 때 강함 되시네”



1.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나의 모든 것  
2.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나의 모든 것  
[후렴]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어요

창세기 3:1-21

해설자, 하나님, 아담, 하와, 뱀

**[해설자]** 태초에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늘과 땅과 바다, 해와 달과 별, 동물과 식물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참 좋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교활했어요. 어느 날 뱀이 나무 위에서 긴 혀를 날름거리며 한 사람의 발자국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드디어 그 발자국의 주인공이 나무 아래에 이르자, 뱀이 말을 걸었어요.

**[ 뱀 ]** (혀를 날름거리며) 여자야, 하나님이 정말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니?

**[ 하 와 ]** 아니,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 하지만 동산 한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그러면 우리가 죽을 거라고 하셨어.

**[ 뱀 ]** (교활한 표정을 지으며) 과연 그럴까?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아. 하나님은 너희가 그 열매를 먹고 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될까 봐 괜히 그러시는 거라고.

.....

**[해설자]** 여자가 보니 정말 그 나무의 열매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어요. 그뿐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어요.

[ 하 와 ] 그럼 먹어볼까? (한 입 베어서 먹는다)  
음 정말 맛있는데? 아담에게도 줘야겠어.

[해 설 자] 하와는 아담이 있는 곳으로 선악과를 가져갔어요.

[ 하 와 ] 아담~ 이 열매 좀 먹어봐. 정말 맛있어

[ 아 답 ] (궁금한 표정으로) 무슨 열매인데? 어! 그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열매잖아!!

[ 하 와 ] 맞아. 그런데 정말 먹음직스러워서 못 참겠더라고. 내가 먹어봤는데, 죽지  
않았어. 괜찮아.

[ 아 답 ] 그래? 그럼 나도 먹어볼까? (한 입 베어 먹는다) 와~ 정말 맛있다!!

[ 하 와 ] (몸을 손으로 가리며) 어? 벌거벗고 있는 게 창피해졌어.  
무화과 잎으로 가려야겠다.

[ 아 답 ] (부끄러운 표정으로) 나도 벌거벗은 게 창피해.  
갑자기 내 몸을 숨기고 싶어졌어.

.....

[해 설 자] 서늘한 바람이 부는 그날, 아담과 하와는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  
를 듣고 하나님을 피해 동산의 나무 사이로 숨었어요.

[하 나 님]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 아 답 ] (두려워하는 목소리로) 제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벌거벗은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 나 님] 누가 너에게 네가 벌거벗었다는 것을 말해주었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 아 답 ] (억울한 표정으로) 하나님이 저와 함께 살라고 짝 지어주신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줘서, 제가 먹은 겁니다.

[하나님] 여자야, 네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하와] (당황한 표정으로) 뱀이 저를 꼬아서 먹었습니다.

[하나님] 뱀아, 네가 이 일을 저질렀으니 모든 집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서 네가 저주를 받아, 평생토록 배로 기어서 다니고, 흙을 먹어야 할 것이다. 또 내가 너와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자손과 여자의 자손이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자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

[해설자] 하나님이 하와에게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여자야, 내가 네게 임신의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다. 네가 괴로움 속에서 자식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남편을 지배하려 하지만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해설자] 하나님이 아담에게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금지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이제 너는 일평생 수고해야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

[해설자] 말씀을 마치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어요.

사탄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서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죄를 짓게 해요. 죄는 서서히 하나님의 말씀을 흐리게 하여 올바른 판단을 못하게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죄도 가볍게 여기면서 합리화 하거나 타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위에 분명하게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죄가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하며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해요. 첫 사람의 죄로 인해 사람은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과 평안을 상실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셨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이 은혜에 감격하는 우리 가족이 되기로 해요.

## 5 생각해봐요

1. 오늘 성경 이야기를 통해 들었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 봐요.
2. 유혹을 받아 고민했던 적이 있나요?
3. 하나님의 말씀 중 가장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은 무엇인가요?

**\*\*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



### 특별 활동 [ 성경 속 이야기 중 하나를 선택해서 ‘사진 찍기’ ]

- \* 온 가족이 다 나와야 합니다.
- \* 분장, 소품을 적극 활용해 주세요. 사진은 4장 까지만 받습니다.
- \* 제목과 함께 사진을 아래 번호로 보내주세요. 참여하신 가정에 소정의 선물을 드리며, 사진은 전시할 계획입니다. (010-3523-4620 허희범 목사)

---

## 5월 [ 2주 ]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어요

---

### 1 기 도 다 함 께

생명의 길을 보이시고

그 가운데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족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그 받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2 찬 송 다 함 께 \*가정에 맞는 찬양 자유롭게 선택

새찬송가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1,4절)



1.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4.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후렴]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복음 성가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어요

사무엘상 17:1~51

해설자, 다윗, 사울, 골리앗

**[해설자]**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름이 담긴 뿔을 가져와 이새의 아들들 앞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날 이후로 여호와와 영이 다윗에게 크게 임하셨어요. 어느 날,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군대를 소집해 유다 땅에 진을 치자, 사울도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 맞은편에 진을 쳤어요. 블레셋 진영에서 키가 3미터인 골리앗 장수가 싸움을 걸어왔어요.

**[골리앗]** (거친 목소리로 고함을 치며) 너희는 내 앞에 나설 만한 사람을 한 명 뽑아서 나에게 보내어라! 그가 나를 죽여서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그러나 내가 그를 죽여서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겨야 한다. 으하하하!!!

**[해설자]** 골리앗의 말을 들은 사울과 온 이스라엘 사람은 기가 죽어 두려움에 떨었어요. 한편,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싸움터에 나가 있는 형님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주러 왔어요. 다윗이 진영에 도착했을 때 마침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갖추고 서로 맞서고 있었어요. 골리앗은 이스라엘을 놀리며 모욕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두려워 벌벌 떨며 도망쳤어요.

**[다윗]** (약간 화난 목소리로)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기에, 살아가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들을 이렇게 모욕한단 말인가!?

[해설자] 누군가 다윗이 하는 말을 듣고 사울에게 보고하자 사울이 다윗을 불렀어요.

[다윗] (자신만만한 태도로) 왕이시여, 저 블레셋 사람 때문에 우리의 기가 죽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나가서 그와 싸우겠습니다.

[사울] (어처구니없다는 듯이) 네가 어떻게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있단 말이냐? 너는 아직 어리지만 저 사람은 어릴 때부터 싸움터에서 단련된 전사다.

[다윗]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아버지의 양들을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나타나 양을 훔쳐 가면 쫓아가 때려서 쓰러뜨리고 그 입에서 양을 구해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사람을 어찌 그냥 내버려둘 수 있단 말입니까?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저를 구해내신 여호와께서 분명히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구해내실 것입니다.

.....

[해설자] 사울왕이 전쟁터에 나가는 다윗에게 군복과 칼을 주었지만 크기가 맞지 않아 가져가지 않았어요. 대신, 다윗은 지팡이와 시냇가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 주머니에 넣은 후 손에 물매를 쥐고 그 블레셋 사람에게로 다가갔어요.

[골리앗] (다윗을 물끄러미 보다가) 아이고, 이게 뭐냐? 무슨 불 빨간 사춘기냐? 그런 막대기나 들고 오다니, 내가 개냐? 우하하!!! 이리로 한번 와 봐라. 내가 네 살점을 공중의 새들과 들판의 짐승들에게 줄 테니. 우하하하!!

[다윗] (당당하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곧 네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셔서 너의 목을 벨 것이다.

또한 여호와께서는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여호와께서 너희 모두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해설자] 골리앗이 다가오자 다윗은 재빨리 그가 있는 곳을 향해 달려 나갔어요.

[다윗]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돌을 꺼내 그 돌을 물매로 던지며) 에잇!!!

[골리앗] (이마를 감싸고 고통스러워하다 쓰러지며) 으악!!!

[해설자] 다윗은 칼을 쓰지 않고 물매와 돌 하나로만 골리앗을 죽였어요. 다윗은 달려가 골리앗을 밟고 서서 그의 칼집에서 칼을 뽑아 그 칼로 못을 베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의 영웅이 죽은 것을 보고 모두 도망쳤어요.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 칼과 창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물매와 돌만 가지고 나아갔어요. 눈에 보이는 무력보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더 크고 강하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세요.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돈이나 권력으로 위협해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니 겁낼 필요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는 다윗처럼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야 해요. 우리가 가진 것이 보잘 것 없어도 하나님은 순종하려고 뛰어드는 사람을 사용하시고 결국 승리하게 하세요.

## 5 생각해봐요

1. 오늘 성경 이야기를 통해 들었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 봐요.
2. 골리앗처럼 무섭고 어려운 일이 있나요?
3.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

### ★ 특별 활동 [ 재활용품을 이용한 교회 만들기 ]

- \* 5월 안에 재활용품을 이용하여 교회를 만들어 보세요.
- \* 교회를 만든 가정은 사진을 찍어, 허희범 목사(010-3523-4620)에게 보내주세요.
- \* 만든 교회는 5/26(주일)까지 교회 사무실에 제출해 주세요.

6월에 전시할 계획입니다.

---

## 5월 [3주] 예수님이 세례/시험을 받으셨어요

---

### 1 기도 다함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도 주변의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탐욕과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우리 가족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2 찬 송 다함께 \*가정에 맞는 찬양 자유롭게 선택

새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1,3절)



1.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3.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네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후렴]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네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복음 성가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 예수님이 세례/시험을 받으셨어요

마태복음 3:4~4:11

해설자, 하나님, 예수님, 요한, 마귀

**[해설자]**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큰 소리로 회개를 선포했어요.

**[요한]**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해설자]** 요한의 말을 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전 지역의 많은 사람이 요한에게로 몰려와 요단강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며 세례를 받았어요.

**[요한]**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라. 너희는 행여나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가 이미 나무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조리 잘려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지금은 내가 너희를 회개시키기 위해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실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많으신 분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

**[해설자]** 그때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오셨어요.

[ 요 한 ] (예수님을 말리며) 선생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저에게 세례를 받으시겠다고 하니,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 예 수 님 ]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우리가 이렇게 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도다.

[ 해 설 자 ] 그제야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내려오셨어요.

[ 하 나 님 ] (근엄한 목소리로) 이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내가 그를 정말 기뻐한다.



[ 해 설 자 ]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40일 밤낮을 금식한 뒤라 배가 고프신 예수님께 마귀가 찾아와서 말했어요.

[ 마 귀 ] (간사한 목소리로)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명령해보시오.

[ 예 수 님 ] 성경에 기록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하였다.

[ 해 설 자 ] 이번에는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어요.

[ 마 귀 ] (간사한 목소리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한 번 뛰어내려보시오.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소? “하나님이 너를 위해 천사들에게 명령하시면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붙잡아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라고 말시오. 안 그렇소?

[ 예 수 님 ] (단호한 목소리로) 성경에 또 기록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였다.

[ 해 설 자 ] 마귀는 다시 예수님을 아주 높은 산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세상 모든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었어요.

[ 마 귀 ] (간사한 목소리로) 당신이 만약 내게 엎드려 경배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 예 수 님 ] (책망하며) 마귀야, 내게서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되기를, 주 네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였다.

[ 해 설 자 ] 그러자 마귀가 예수님을 떠나갔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섬겼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을 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찾아왔어요. 마귀는 예수님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이라는 말을 하면서 자신의 말에 순종하도록 유혹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말씀에 근거하여 마귀의 유혹에 단호하게 대답하셨고, 마귀가 스스로 예수님을 떠나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영적인 권세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가질 수 없고, 작은 유혹에도 의심을 가지게 돼요. 우리 가족 모두 말씀으로 무장하고 마음을 지켜서 어떤 유혹이 와도 이겨내기로 해요.

## 5 생각해봐요

1. 오늘 성경 이야기를 통해 들었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 봐요.
2.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가장 큰 유혹은 무엇인가요?
3. 유혹과 시험 앞에 승리하기 위한 말씀 한 구절을 정해 봐요.

**\*\*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

### ★ 특별 활동 [가로세로 낱말퀴즈] (뒷장)

- \* 자녀가 주도적으로 풀어보아요.
- \* 인터넷 검색은 No!! 도저히 알 수 없을 때 검색 찬스를 주세요!!
- \* 굵은 네모 안에 숨겨진 단어는 무엇일까요!? 서로에게 해주세요!!

1	2					
					4	
	3					
					5	6
7			8			
9						

### 가로 문제

1. 서울시 성동구 ooo 164 꽃재교회
3. 돈으로도 못가요~ 힘으로도 못가요~
4. 바울이 마술사 바예수를 만난 섬(행13)
5. 다이어트, 몸짱, 치즈, 김치, 아몬드?
7. 바울이 출생한 길리기아의 도시(행22)
8. Hello, こんにちは, 你好, Hola,  
Buòn giòrno, Bonjour
9. ○sTεrοrο

### 세로 문제

2. 천연기념물 제218호, 소가 날아??
4. 예수님 대신 풀려난 죄수(마27)
6. 봄꽃, 당신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7. 다니엘을 사자 굴에 넣어놓고  
걱정되어 금식한 왕
8. 베드로의 형제(요1)

---

## 5월 [4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

### 1 기도 다함께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날마다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믿음과 지혜를 더해주시고  
겉모습보다는 내면의 아름다움에 더 집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가족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2 찬송 다함께 \*가정에 맞는 찬양 자유롭게 선택

새찬송가 221장 “주 믿는 형제들”(1,4절)



1.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귀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4. 또 이별 할 때에 맘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 다시 만나리

복음 성가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요한복음 13:1~35

해설자, 예수님, 요한, 베드로

**[해설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날을 기념하는 유월절이 오기 전에,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마귀는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배반할 생각을 넣었어요. 예수님은 일어나 겹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어요.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 오셨어요.

**[예수님]** (다정하게 쳐다보시며) 요한아!

**[요한]** 네?

**[예수님]** 네 발을 이리 주렴.

**[요한]** (당황하며) 네? 제 더러운 발을요?

안 돼요. 하루 종일 걸어서 더럽단 말이에요.

**[예수님]** 어서 이리 발을 내놔라.

.....

**[해설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며 발을 씻어 주셨어요. 이제 베드로 차례가 되었어요.

**[베드로]** (어쩔 줄 몰라 하며) 주여, 제 발도 씻어주려고 하십니까?

[예수님] 너는 내가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그러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베드로] (거절하며) 제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예수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베드로] (발을 뺀고 머리를 숙이며) 그렇다면 주여, 제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기 때문에 발밖에는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너희 모두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

[해설자] 예수님은 누가 자신을 배반할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너희 모두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모두 씻어주신 후 다시 겹옷을 걸치시고 자리에 돌아오셨어요.

[예수님] 사랑하는 제자들아, 내가 너희들의 발을 왜 씻겼는지 알겠느냐?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어주어야 한다. 내가 본을 보였으니 너희들도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그대로 행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내가 보내는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이요,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사람이다. (괴로워하시며) 그리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베드로] (당황하여 다른 제자들을 쳐다보며) 누구야? 누가 예수님을 배반한다는 거야? (예수님 품에 기대고 있는 요한에게 손짓하며)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여쭙봐.

[요한] 예수님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님] 내가 이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빵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주시며) 네가 하려는 일을 어서 하여라.

**[해설자]**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슨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알지 못했어요. 유다는 빵 조각을 받은 후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얘들아, 이제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인데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내가 새 계명을 줄 것인데,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십자가 고난은 예수님이 무능력해서 받으신 것이 아니에요.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자유를 얻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에서 잘 되는 복을 받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삶 속에서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 주신 대로 섬기고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가롯 유다가 나가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어요. 우리 가족도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요.

## 5 생각해봐요

1. 오늘 성경 이야기를 통해 들었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 봐요.
2. 언제 가족에게 사랑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드나요?
3.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

### ★ 특별 활동 [ 세족식, 서로의 발을 씻겨주기 ]

- \* 서로의 발을 씻겨 주면서 칭찬 또는 고마운 점 세 가지를 고백해요.
- \* 서로에게 바라는 것을 들어 보아요.
- \* 세족식을 마친 후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어요.

---

## 5월 [ 1주 ] 예수님, 많이 바쁘신가요?

■ 찬 송 가 565장 “예수께로 가면”

■ 성경 본문 마가복음 10:13~16

---

- 13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 14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 15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 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 16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님 당시에 존경받는 선생님을 찾아가 인사하고 안수 받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랍비, 곧 선생으로 불린 예수님에게 아이들이 나오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데려온 부모 역시 자기 아이가 예수님께 지혜로운 말씀도 듣고, 안수도 받고, 좋은 가르침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을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인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이들을 꾸짖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이들이 소란을 피웠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시의 문화적 배경으로 볼 때, 어린 아이들을 상당히 업신여겼으리라 추측해볼 뿐입니다.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찾는 사람도 많고 갈 곳도 많으니, 이런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시간을 내줄 여유가 없다고 판단했을지 모릅니다.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아이들을 용납해 주라며 도리어 제자들을 나무라십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며,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린 아이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서 아이들을 끌어안고 안수하며 축복하시고,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 하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어른들의 꾸지람을 넘어, 예수님의 품에 안겨 눈을 마주하고 안수 받는 아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에게 이 순간은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감격의 순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가슴으로 와 닿는 뜨거운 사랑 속에서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 가까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천 마디 말보다도 값진 가르침과 배움의 순간 이었습니다.

어린이는 내일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나중에, 혹은 커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 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바로 오늘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그러 니 제자들처럼, 예수님은 어른들 만나느라 바쁘다고 핑계 댈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이들을 가슴으로 끌어안고 사랑한다고 말해 주어야 합니다. “네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구나!” 하며 감탄하고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그 경험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며 더욱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그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어린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 ! 생각해봅시다

1. 우리 교회는 아이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교회인가요?
2. 아이들을 위해 내가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 \* 마침 기도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셔서 품에 안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어린 아이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어린이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 5월 [2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 찬 송 가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 성경 본문 룻기 1:15~17

---

- 15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 16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 17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름다운 단막극과 같은 룻기서는 성경 66권 중 여성의 이름을 제목으로 한 두 책 중에 하나입니다.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모압 여인 룻이 시 어머니 나오미를 모시고 살면서 공경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받아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은 어떻게 이런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까요?

첫째, 간절한 신앙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앙고백은 자신의 신앙을 외적으로 표현하려는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성도가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도 당신에게 신앙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마16:17).”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압 땅의 여인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며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길을 따르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룻이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헬에 가기로 결심한 이유는 룻에게 ‘나의 하나님’이 계셨기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각오와 고백을 하는 롯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둘째, 시어머니에 대한 공경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롯은 모압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하겠다고 결심하고 이스라엘로 따라나섭니다. 롯의 아름다운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겨레가 내 겨레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 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16-17새번역).” 롯의 이런 고백과 결심은 시어머니에 대한 지극한 공경심에서 비롯했습니다. 그가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공경하며 봉양했기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셔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신5:16).” 부모에 대한 공경심이 많이 사라져가는 시대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대를 따라 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귀중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생명과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 ! 생각해봅시다

1.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있나요?
2. 부모와의 추억을 가족들과 나눠 봐요.

## \* 마침 기도

사랑의 주님, 롯처럼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 앞에 신실한 마음을 고백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거룩한 명령을 따라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맺어주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온전한 관계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 5월 [3주] 은혜 입은 자들

■ 찬 송 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 성경 본문 이사야 61:1~3

---

- 1 주 여호와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
- 2 여호와와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 3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재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얼굴에서 누가 가장 중요한지를 두고 눈, 코, 입, 귀가 싸움을 벌였습니다. 점점 목소리가 높아지며 싸움이 격해질 무렵 이들을 가만히 지켜보던 얼굴이 말했습니다. “너희는 모두 나한테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친구들이야. 누구 하나 빠짐 없이 똑같이 중요한데 싸울 일이 뭐 있지.” 머쓱해진 눈, 코, 입, 귀는 서로의 고유한 역할을 인정하며 화해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존재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사람의 한계로 인해 그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거나 깨닫지 못하는 경우는 있어도, 존재 이유 없이 존재하는 것은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존재 이유를 주시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은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강대국의 침략으로 나라가 멸망하고, 타국에 노예로 끌려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한없이 무너져 내렸고, 자신들의 힘으로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현실에 절망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보내신 메시아가 해방의 자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이고, 원수를 갚아 백성의 눈물과 슬픔을 기쁨과 찬송으로 바꿔 주실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사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3하).” 즉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은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 계심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나의 행동과 말, 나의 선택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은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내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삶에 나의 행동과 말, 나의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 ! 생각해봅시다

1.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2.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말이나 행동의 습관이 있나요?

## \* 마침 기도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하나님께 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의 행동과 말, 나의 선택이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 5월 [4주] 내가 미처 몰랐구나

■ 찬 송 가 419장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 성경 본문 창세기 28:16-19

---

- 16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 17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 곳이어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 18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 19 그 곳 이름을 벰엘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에서가 들로 나가 사냥을 하며 모험을 즐기는 외향적 성향이었다면, 야곱은 장막에 머물며 죽 만들기를 즐기는 내향적인 성향이었습니다. 즉 모험보다는 안정을 선호하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는 잘못을 범하고는 위협을 느낀 나머지, 자신을 특별히 사랑해 준 어머니 리브가마저 뒤로한 채 허겁지겁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달아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28장은 그러한 야곱이 한밤중에 황량한 들판에서 피곤하고 지친 몸으로 돌을 베개 삼아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여 줍니다. 지금 야곱의 처지는 자신이 계획했던 것도, 자신이 좋아하는 것도, 자신의 성향에 맞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밤에, 그 황량한 들판에서 야곱은 하나님 체험을 합니다. 그가 잠에서 깬 후 놀라움 가운데 고백하는 말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른 성경 번역은 야곱의 첫 말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몰랐다는 것일까요? 외롭고 실패한 것 같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고, 후회가 끝없이 밀려오는 것 같은 삶의 한복판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미처 몰랐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가 이런 처지가 되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계시냐(nowhere)고 불평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자기와 지금 함께하신다(now here)는 놀라운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야곱은 “두렵도다 이 곳이어(17).”라고 고백합니다. 널려 있는 돌 중에 하나를 가져다가 베개 삼고, 풀과 밤이슬을 이불 삼아 누운 이곳이, 무엇 하나 갖춰진 것 없는 형편없는 자리, 망나니처럼 내 멋대로 해도 뭐라 할 사람 없는 그런 버려진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으로 향한 하늘문임을 깨닫고는 자기도 모르게 터진 고백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먼 데 계셔서 지금의 나를 관조하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나와 함께해 주시는 분입니다. 야곱과 같은 깨달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지금의 내 처지와 형편을 핑계 삼지 않고 유혹과 시험을 넉넉히 이기면서 바르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내 삶이 누군가를 하나님의 집으로 안내하는 문이 될 수 있습니다.

## ! 생각해봅시다

1. 당시엔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나요?
2.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어떤 삶인가요?

## \* 마침 기도

하나님. 살다 보면 원치 않는 곳에서 원치 않는 일을 해야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탄식하며 주님의 뜻을 찾기도 합니다. 그럴 때 깨닫게 하옵소서. 야곱처럼 바로 지금 여기에 주님이 계심을 믿고 체험하며 일상의 의미를 찾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예배 기억하기

1. 각 주차 별로 가장 인상 깊었던 단어/문장을 적어주세요

1주

---

2주

---

3주

---

4주

---

2. 이번 가정 예배를 통해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적어주세요.

